

#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 목차

5789 예수님의 사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4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영인 루시퍼와 그의 타락.....	6
5612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 빛의 전달자. 하나님을 떠난 타락.....	6
7067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9
8880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13
모든 존재는 똑같이 온전했다.....	16
8797 하나님은 단지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했다.....	16
8798 계시 번호 8797 에서 계속: 하나님은 단지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했다.....	18
예수님의 사명의 원인.....	21
6438 예수 탄생의 원인과 목적.....	21
8750 예수의 혼은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육신을 입었는가?.....	22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인 예수를 이 땅으로 보냈다.....	25
2452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25
8263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26
8537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27
예수의 성육신.....	31
8353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31
8667 예수님은 인간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다.....	32
8756 예수의 몸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굳어진 입자이다.....	34
하나님과 예수의 연합.....	37
7454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37
8091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심.....	38
8250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39
예수의 구속 역사.....	42
5213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42
5361 천사들의 타락. 성 금요일 계시.....	43
8222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45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게 된 하나님.....	48
5348 그리스도 문제. 볼 수 있는 하나님.....	48
7828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영이다.....	49
7816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	50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52
5884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룩한 이름.....	52
6098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53
8280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는가.....	54
5577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제자.....	56

예수님의 사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B.D. No. 5789

1953년 10월 14일

**너**희 사람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해줘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에게 전해진 믿음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일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에게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 제시한다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 예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런 육신을 입은 일과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인류를 위한 사명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이유가 주어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 이 전과는 다른 입장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진리를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지식을 받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일에 더 무관심할수록 더 많이 순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소한 질문이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준다. 그러나 사람들이 단지 희귀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야 할 인간 예수에 대한 설명을 구한다. 그러나 인간이 구속사역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가 구속사역을 믿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하면, 그들이 실제 영접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을 주고,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을 나눠준다.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단지 지식을 영접한다면, 그들에게 깨달음을 의미하는 지식을 준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예수가 그렇게 살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고, 죽게 한 일이 세상적인 이 땅의 일에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 땅의 삶에는 단지 사람의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혼이 처한 상상할 수 없고, 영원한 시간으로 확장될 위험을 피하게 해주려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하게 하려면, 사람들은 영적인 원인에 대해 알아야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상상할 수 없게 고통스러운 상태를 향해 다가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지 또는 인정하지 않는 지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은 진리를 가르침받아야 하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무엇이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초인간적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 빛의 전달자. 하나님을 떠난 타락.

B.D. No. 5612

1953년 2월 28일

**인**간으로서 너희의 이성은 어느 정도까지 깊은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왜냐면 순수하게 영적인 내용은 단지 영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은 너희 안의 영이 영접할 것이고, 혼을 통해 실제 이성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성은 아주 세상적인 부담을 지니고 있고, 그러므로 이성은 모든 것이 그에게 선명할 정도로 영적 지식을 깊이 꿰뚫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너희 안의 영의 불씨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에게 말한 의미를 파악한다.

내 형성하려는 의지는 아주 크고, 내 힘은 지칠 줄 모르고, 나는 내 생각과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꼈다. 이런 축복이 자신을 알리기를 원했고, 내 사랑은 자신을 선물해주기를 원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나를 말할 수 없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기를 원했다. 나는 내가 홀로 존재하는 일을 부족한 점으로 느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런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내가 그에게 무한한 행복을 줄 수 있고 또한 내 축복을 더 높이기 위해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존재 안에서 나는 나를 다시 찾기를 원했고, 그런 존재를 창조하기를 원했고, 이런 의지로 충분했다. 왜냐면 내 의지는 힘이었고 항상 사랑과 지혜로 역사했기 때문이다.

나에 의해 생성된 존재는 이제 실제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존재는 나를 볼 수 없었다. 왜냐면 그가 나를 볼 수 있었다면, 그가 축복으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어떤 존재도 나를 보는 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가 나 자신의 완벽한 형상일 지라도 단지 내 사랑의 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는 나 자신이 사랑의 힘 자체이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모든 것에게 향하고 그러므로 내가 생성되게 한 존재는 나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 안에 나 자신을 위한 그릇을 창조했고, 그릇 안으로 내 사랑의 힘을 지속적으로 부어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존재는 나로부터 내 창조적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사랑을 나에게서 나온 끊임 없는 힘의 흐름을 통해 넘치게 받았다. 그러므로 존재는 이제 똑같은 축복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을 나타낼 수 있었고, 창조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내 축복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었다. 왜냐면 내 힘이 존재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행복으로 인해 기뻐했다.

이런 존재로부터 이제 수많은 동일한 존재들이 나왔고, 그들 모두는 발산되는 빛과 최고 온전함을 가진 내 사랑의 자녀들이었다. 왜냐면 나에 의해 내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창조된 나 자신의 형상인 존재는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의지가 같았기 때문이고, 창조된 존재 안에서 우리 둘의 사랑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고, 내 의지와 사랑이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를 통해 역사하는 동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는 빛으로 가득한 영의 세계였고, 원래 창조된 많은 영들의 세계였다. 나로부터 나온 힘이 제한 없게 존재에게 흘러갔고, 내가 존재를 빛과 힘의 소유자로 택했다.

존재 자신은 아주 축복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축복을 높여 주기를 원했고, 존재가 온전한 존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 의지에 묶이지 않고, 존재의 의지를 따라 행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가 창조한 존재는 다른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존재가 자유롭게 역사하고 일할 수 있기를 원했다. 왜냐면 사랑이 그 안에서 아주 강하게 되고, 사랑이 나와 같은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 신적인 존재의 첫번째 특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랑을 내 첫번째 피조물로부터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또한 동시에 존재에게 최고의 온전함을 얻게 해야 한다. 이로써 더 이상 창조된 존재로서 내 의지대로 역사하지 않고, 사랑으로 내 뜻을 따르고 무한한 축복을 누리야 한다. 그러나 존재는 이런 의지와 사랑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적인 자유의지로 움직여야만 했다. 존재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존재가 빛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가 생성되게 한 무수히 많은 존재들을 보았고, 비록 그가 나에게서 힘을 얻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그들의 창조주라고 느꼈다.

존재는 내 힘을 부러워했다. 자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있는 가운데 존재는 자신이 나로부터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러나 존재 자신이 창조된 존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장하면서 존재들에게 자신을 힘의 원천으로,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로 제시했다. 그는 지배하기 위해 내 사랑과 결별을 선언했다.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일이 너희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그런 일을 설명한다. 자유의지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 부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빛과 힘의 전달자는 한편으로 자신을 통한 전달되는 힘의 증거를 보았지만 그러나 힘의 근원 자체는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자신이 창조한 영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들었고 또한 영들에게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바뀐 의지를 영들에게 전해 주려고 시도했다. 내 힘을 사용하여 빛의 전달자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에게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 왔고, 그들의 온전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다가 왔다. 내 힘이 이런 모든 존재들 안에 있었고, 그들은 빛으로 충만했고,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깨달은 나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창조한 분에게 향했다. 왜냐면 그들을 창조한 힘이 사랑이었고, 창조할 능력을 준 이 힘이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를 통해 흘렀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이제 결정해야 했고, 분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났고, 영적인 존재들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도록 재촉을 받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이 빛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에게서 원래 힘의 원천을 향한 갈망이 더 강했고, 나로부터 분리된 자를 향한 사랑이 감소하고, 사랑이 증가된 권세로 나에게 향한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내가 영원으로부터 사랑이라는 깨달음이 그들 안의 빛이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실제 깨달음을 가지고 있

었지만 그러나 깨달음에 얽매어 있지 않은 자유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에게 자유가 없었을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갈라졌다.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나 자신이 추종자들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밖에 있는 존재가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러나 나에게 나온 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여 많은 존재들이 나에게 대적하려는 자에게서 돌아섰다. 그들의 의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했다. 반면에 빛의 전달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고, 이런 일은 깊은 곳으로 타락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나에 의해 생성된 가장 빛이 충만한 존재인 빛의 전달자가 내 대적자가 되었다. 반면에 그에 의해 생성되었고, 우리 둘의 사랑의 의지가 창조한 존재들을 채우고 있던 사랑의 불길의 정도에 따라 일부가 나에게 향했고, 다른 일부가 그에게 향했다. 왜냐면 빛 전달자가 나와 분리되는 순간에 존재들에게 안정된 기댈 곳을 향한 정해지지 않은 갈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역사하기 시작했고, 자유의지는 나에 의해 강제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한 내 대적자로부터 강제로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단지 모든 존재를 자신을 위해 얻기 원하는 우리 둘의 힘의 발산을 받았다. 내 힘의 흐름은 단지 사랑이었고 존재들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여 존재들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러나 나에 의해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의 의지 변화도 또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존재들이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존재들이 그를 따랐다. 즉 많은 존재들이 그의 의지에 복종했고, 나를 떠났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원래 창조된 존재들이 자신을 내 자녀로 느꼈고, 자유의지로 나에게 충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단지 훨씬 더 적었다. 그들은 최초의 피조물들로서, 내 빛의 전달자의 가장 축복된 창조하려는 의지와 그에게 흘러가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힘에 의해 생성되었다. 이런 사랑의 힘이 또한 존재들에게 있었고, 끊임없이 나에게 향하도록 그들을 촉구했다. 왜냐면 그들은 현재 그들의 생산자의 잘못된 의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그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다. 다른 존재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 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를 따랐고, 그들의 의지는 존중되었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이런 의지의 결정이 피조물들을 자립적인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를 떠난 존재는 많은 추종자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왜냐면 나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깊은 곳을 추구하는 일을 의미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태에 되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어둠과 무기력함과 지식과 힘의 부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 자녀들은 가장 빛나는 빛과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축복된 가운데 머물렀다.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타락한 후에 그의 힘이 사라졌다. 그가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의 힘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창조하고 조성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권세와 힘은 그의 추종자들이었고, 그는 이제 어둠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내가 내 대적자에게 영원히 넘기지 않은 내 사랑의 산물이고, 이런 존재들이 그들 안에 아직 그들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그에게 속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의지를 나에게 돌리는 일에 성공을 하면, 그가 그들을 잃게 되고, 그러므로 그의 힘

이 같은 정도로 감소한다. 이런 일은 항상 존재의 자유의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가 그의 권세로부터 그에게 복종하는 존재를 구원하는 일과 같다.

내 영원한 구원 계획이 이런 일을 목표로 한다. 빛의 나라의 모든 거주자들과 내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가장 큰 열심과 가장 충만한 사랑으로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왜냐면 그들 모두가 내 동역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락한 형제들이 한때 자발적으로 잃은 축복을 되찾게 해주기위해 노력한다. 이런 해방의 역사는 한때 타락한 존재들의 마지막 존재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 사랑에 의해 첫번째로 생성된 존재가 내 사랑을 갈망하는 가운데 나에게 다시 다가올 때까지, 이런 후회하는 존재가 한때 자발적으로 떠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성공할 것이다.

아멘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

B.D. No. 7067

1958년 3월 17일

**너**희 내면에 아직 어두운 곳이 밝게 되는 일이 내 뜻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답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알기 원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내 사랑과 지혜 가운데 나를 깨닫고 나 자신에게 그들의 사랑을 드리게 하기 위해 답변한다.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는 일은 영적인 과정이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빛의 존재가 단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이 과정의 대강의 윤곽만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지라도 이 윤곽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를 밝게 해주는데 기여하는 깊은 이유와 끝 없이 많은 중간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단지 진리를 가르침받기 원하는 너희를 혼란 된 생각 속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첫 번째 존재를 창조했을 때 단지 내 항상 발산되는 사랑의 힘을 받아야 하는 그릇을 창조하려는 생각을 했다. 왜냐면 내 제한 없는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항상 단지 행복하게 해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의 힘은 쉬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영적인 창조물들을 생성했고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에 합당한 다시 말해 내 형상인 어떤 존재를 생성하기 원했다.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내 곁에 최고로 온전한 존재가 생성되었다. 나 자신이 그로 인해 기뻐했고 그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나 자신의 형상이고 이제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내가 그 안에 부여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 힘의 원천이 형성하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존재는 자신 안에 자신에게 쉬지 않고 흘러가는 사랑의 힘의 흐름을 활용하고 자신이 존재들을 생성하려는 의지와 소원이 있었고 같은 과정이 이제 반복되었다. 왜냐면 내가 바로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가 자신과 같은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에 참여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 자신의 형상으로써 존재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나로부터 항상 사랑과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 존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놔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능력은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제 창조 된 존재도 나 자신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와 다를 수 없었다. 존재들은 최고로 온전하고 빛을 발산하는 아주 권세 있고 모두가 나 자신이 나로부터 생성되게 한 형상에 합당한 영들이었다. 비록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의 의지가 이런 내 능력을 사용했을까라도 그가 창조 하는 일을 비로소 가능하게 해주었던 나로부터 흘러간 능력 때문에 나 자신이 그들의 창조자였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들이 나와 내 첫 번째 형상으로부터 생성되었고 모든 존재들은 같은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원래 창조 된 존재 안에 내 의지가 역사했고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들은 나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왜냐면 내 사랑의 불길이 그들의 원래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생성물이고 이로써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에게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축복된 조화와 계속하여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끝 없이 긴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상태가 바뀔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과정이 단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일은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빛의 전달자인 존재가 나를 보려는 소원으로 인해 일어났다. 존재의 나를 향한 사랑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능력과 빛의 중심으로서 나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나를 볼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를 보기 원했다. 나 자신의 빛의 불씨로 창조 된 그가 내 빛이 충만함으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보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나로부터 독립되게 만들고 동시에 원래 창조 된 영들의 무리 앞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 보이려는 생각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더 나은 깨달음에 반해 나를 보려는 갈망의 결과로써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존재들은 온전함의 증거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항상 내 의지와 일치했다. 이 자유의지가 이런 생각의 혼돈을 허용했다. 그러므로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자신의 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나에 의해 금지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조하는 일은 중단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의 의지가 더 이상 내 의지와 일치하지 않았다. 동시에 그는 내 사랑의 흐름에 자신을 단았다. 그러나 항상 단지 잠시동안 단았다. 왜냐면 아직 그의 저항이 아주 적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고 그가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다시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는 능력의 흐름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줄어들지 않는 창조하는 일을 의미했다.

그러나 잘못 된 생각이 항상 또 다시 그 안에서 떠올랐다. 왜냐면 그가 이런 생각을 나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렸다면, 내가 이 생각에 반론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는 한 동안 나를 제외시켰고 자신의 능력이 연약하게 되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1968년 3월 16일) 그가 잘못 된 생각을 통해 나와 연결을 느슨하게 하였을 때 사랑의 힘의 흐름도 줄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생명으로 생성되게 한 셀 수 없이 많은 영들의 무리를 보면서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

내 능력이 비로소 그가 존재들을 창조할 수 있게 했다는 것과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이 비로소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했다. 이로써 그의 사랑이 줄어들

으로 능력의 제공이 줄어든 일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와 루시퍼와의 연결에 대한 증거이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의식적으로 나를 떠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떤 존재도 창조할 수 없었다. 모든 창조 된 존재들은 나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이기에 때문에 내 소유이다.

그렇지라도 모든 존재들의 큰 부분이 나를 떠났다. 이런 사실이 존재들의 원래의 성분이 서로 다른 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만하게 한다. 나는 나로부터 단지 하나의 자립적인 존재를 생성했고 이 존재는 내 형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존재에 의해 생명으로 생성 된 영의 존재들은 다시 전적으로 나와 내 형상에 합당해야만 한다. 존재들은 똑같이 온전하고 최고로 빛을 발산하는 피조물이었다. 왜냐면 전적으로 같았던 우리 둘의 사랑과 의지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 된 빛의 전달자보다 어떤 면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최고로 온전한 존재만이 단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비록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권세가 충만했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깨달았다. 왜냐면 내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이다. 경외심 가운데 나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고 항상 단지 내 뜻대로 역사하는 이로써 나 자신의 형상인 셀 수 없이 많은 영의 무리들이 최고로 축복된 가운데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였다. 이런 묘사할 수 없는 축복된 영의 무리들이 빛의 전달자의 나를 향한 사랑을 항상 더욱 증가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 안에서 여러가지 느낌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는 영광스러운 빛나는 존재들을 보고 이제 나 자신을 보기 원했다. 그는 존재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이 나보다 월등하다고 믿었고 자신이 나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았을지라도 나를 더 이상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분으로 인정하기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흘러가는 능력을 의식하는 가운데 힘의 원천을 떠났다. 이런 일은 영원한 기간을 통해 일어났다. 왜냐면 항상 또 다시 축복을 향한 갈망이 그를 나에게 향하게 재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능력을 항상 또 다시 받았다.

이처럼 이런 존재들도 그들의 원래의 성분은 같았다. 다시 말해 나로부터 발산 된 사랑의 힘이었다. 그러나 한동안 나를 떠난 일이 창조 된 존재의 의지와 사랑이 나보다 그들을 생산한 자에게 더 향하면서 창조하는 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나는 이런 존재들과 빛의 전달자를 다르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정도로 빛이 충만했고 마찬가지로 나를 자신들의 창조주로 깨달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큰 결정을 요구하였을 때 그들의 의지가 자유한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1958년 3월 17일)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는 내가 모든 존재들과 분리될 수 없게 연결 된 것처럼 자신에 의해 생성 된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존재해야 하면, 내 사랑의 힘이 그들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이제 그에 의해 창조되는 존재들이 이미 나를 떠난 의지를 가졌을 때 그들과 연결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영의 존재들도 내 대적자에 의해 나를 떠나라

는 자극을 받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내 대적자의 유혹에 넘어갔고 루시퍼는 이들을 깊은 곳으로 끌어 드렸다. 그들의 깨달음이 진실로 내 대적자의 비열한 계획을 혐오했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더욱 더 컸고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내 대적자를 추종하는 영들이 나를 떠났을지라도 초기에 창조된 영들의 더 많은수가 나에게 머물렀다.

루시퍼가 나를 대적하기 시작한 숨겨진 저항은 셀 수 없이 많은 창조된 영들이 의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한 또는 나를 대적하는 결정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저항이 지금까지 굳은 연합을 방해했고 한때 내 형상이었던 존재들을 같은 의지와 같은 사랑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고 분리가 일어났다. 이제 비록 내 능력이 그들을 창조하는데 참여했지만 그들을 생산한 자와 같은 성정을 가지게 된 우리의 사랑으로 생성된 존재들이 이런 분리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생성된 빛의 존재에게 이런 저항이 아직 없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과 의지가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부터 단지 우리와 전적으로 동일한 존재들이 생성되었다. 존재들은 빛나는 충만한 빛과 제한이 없는 능력을 가진 나 자신과 동일한 내 사랑으로 나로부터 생성된 형상이었고 적은 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나에게 머물렀다.

적은 수의 존재들에게 루시퍼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존재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된 방향으로 향하게 했고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했고 필요에 의해 나를 볼 수 없게 만든 것으로부터 잘못 된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는 존재를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했다. 볼 수 있는 존재는 이제 자신을 높여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을 자기에게 끌어 드렸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존재들이 의지적으로 나를 떠났고 이로써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모든 존재들이 한때 빛과 힘을 발산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빛의 발산은 먼저 나를 향한 루시퍼의 사랑이 줄어들어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 존재에게 깨달음의 빛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면 창조하는 순간에 내 사랑의 힘이 다시 모든 존재들을 생성한 자에게 충만하게 흘러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의지적으로 나에게 저항해 이제 그 자신이 나처럼 마찬가지로 능력이 충만하다고 믿고 능력의 흐름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받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이런 창조하는 순간은 항상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한때 내 형상이었던 그의 영의 상태는 어두워졌고 내 상극이 되었다. 그의 성품은 전적으로 나와 반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세와 강함으로 착각했던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내 사랑으로 생성된 최고의 존재가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 왜냐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특징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그의 의지를 나에게 향할지 또는 그에게 향할지 택할 자유가 있었다. 모든 존재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왜냐면 모든 존재는 빛의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산자의 재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내 사랑을 잃지 않았다. 왜냐면 내 사랑이 존재들을 생성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존재들을 영원히 소멸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저항을 줄이기 전에는 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이로써 불행할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존재는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을 구할 것이고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 존재는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것이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에게 그들이 보기를 갈망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아멘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B.D. No. 8880

1964년 11월 8일

**만**약에 너희가 위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다가가는 내 끝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이 사랑은 너에게 항상 계속하여 주어진다. 왜냐면 너희는 내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를 따라 깊은 곳까지 갈지만 그러나 너희의 원래의 성품은 사랑이다.

너희가 다시 너희의 원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음성을 통해 단지 선한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항상 단지 너희를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알려주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출처를 너희는 의심할 필요 없다. 이는 단지 선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왜냐면 "영원한 진리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리가 너희에게 잘못 된 가르침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 가운데 너희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종말의 때에 이런 보장은 아주 필요하다. 왜냐면 심지어 내 진리의 전달자에게도 전달 내용이 진리인지 의심에 빠지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빛이 전달자들을 오류로부터 보호함을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왜냐면 만약에 나 자신이 아니라면, 누가 순수한 진리라는 보장을 너희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사람의 진리를 향한 의지와 갈망을 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대적자가 특별히 빛을 전하려는 너희에게 역사함을 말한다. 그는 이를 방해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 사람들의 심장에 그들이 받은 것의 진리성에 의심을 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내 역사도 항상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항상 분명하게 대적자가 이미 침범한 곳에서 오류를 밝혀 낼 것이다. 왜냐면 그의 목표는 너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 스스로 순수한 진리를 열망하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속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창조의 순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빛의 전달자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이었다. 왜냐면 그의 의지와 내 사랑의 힘의 작품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졌고 이것들은 우리

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했고 빛의 전달자의 사랑은 항상 더욱 빛나게 나를 향해 타올랐다. 왜냐면 그들 안에 같은 창조자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창조물로 인해 기뻐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통해 그들의 축복을 측량할 수 없이 높일 수 있었다

창조된 존재에게는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두 다 나와 같은 형상으로 생성되어 나왔으며 그들이 내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진 대로 창조하며 조성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전제할 때에 그들이 사랑의 힘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 그들의 일이 저하됐다는 것을 너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빛과 그들의 깨달음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생각은 혼돈되게 되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고 자신 안에서 굳어졌다.

그러나 나로부터 한때 나온 능력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 종류의 창조물로 변경을 시켰다. 이 과정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자주 설명을 했다. 너희는 이를 가장 순수한 진리로 영접할 수 있다. 너희는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나를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생각할 것 없이 영접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에게 가장 빛나는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절로 나타나는 영향력의 범위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빛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타락한 존재들을 타락하게 했다는 또는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모든 설명들을 오류로 깨닫게 만들 것이다. 모든 존재들은 내 사랑의 힘의 흐름을 거절할 때 까지는 내 의지 아래서 역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인 실체는 굳어지게 되었다. 내가 한때 존재로 발출시킨 내 능력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입자로 분해가 되어 작은 가장 작은 입자가 되어 이 입자들로부터 창조물이 생성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존재들은 모든 반발심과 대항해 싸워야 했다. 왜냐면 이들은 자신을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 이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 하는 일은 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활용하는데 있었다. 이 존재들은 가장 밝은 빛의 상태에 있었고 이로써 깨달음 가운데 있어 단지 내 의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존재들이 나에게 진실되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내 의지에 따라 역사하고 창조했다.

존재들이 나를 떠나 갈 때에 그들은 창조하고 조성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그들은 굳어지게 되었고 행함이 없이 남게 되었다. 이로써 창조물들이 생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영원 전부터 루시퍼와 존재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타락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빛의 전달자 루시퍼에게 같은 모든 능력을 주었고 이 능력을 줄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에게 전적으로 대항하는 세계인 두 번째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들이 나를 떠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가 그리고 나중에 그의 추종자들이 내 사랑의 힘의 흐름에 자신을 담음으로써 이 모든 일은 단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이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으로 출발되어 나왔다는 전적인 깨달음 가운데 나 자신에게 대적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의지 안에서 존재의 생각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나에게서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은 이런 잘못 된 의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면 이것은 영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루시퍼는 내 반대 극이 되었고 모든 악한 생각들의 근원이 그 자신이었고 존재들에게 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들이 나에게 의식적으로 사랑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대적자는 이 존재들에 대한 전적인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내가 존재들로부터 그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 그리고 귀환을 위한 과정으로 인도하기 위해 창조물을 만들 때까지 그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제 이 존재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그의 모든 잘못 된 생각을 버리고 그의 의지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고통의 길을 오랫동안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탄적인 것을 버려야만 한다. 그리고 자유의지 가운데 신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 만으로도 이미 악이 내 안에서 근원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신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신적이라는 의미는 빛과 어둠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내 안에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고 요약해서 내가 내 안의 모든 상반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지 선한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지가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내 대적자를 위할 것인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다. 그가 내 대적자가 되었을 때에 이미 악했고 나에게 대적하는 모든 것을 창조 했다. 나는 나 자신과 같은 권세가 있었고 그는 단지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내 대적자가 사용하는 가장 악한 속임수는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악한 것들의 출처가 내 안에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였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왜냐면 이를 통해 존재에게 혼동의 상태가 왔기 때문이다. 이 상태 가운데 그들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을 거절했고 이로써 분해가 되어 묶임을 받고 모든 종류의 창조물이 된 것이다.

나로부터 발산되어 나온 능력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 가운데 이 능력을 다시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 영원한 법칙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있는 동안에 타락한 자 안에 넣어진 루시퍼의 생각이 원인이 된 죄와 싸워야만 한다는 것이 내 사랑에 의해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내 과정이 되었다.

이로써 사탄은 원하지 않게 이런 귀환의 역사에 참여해 일하게 되었고 나는 이를 영원으로부터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그를 내 반대의 극으로 정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도 자유로운 존재로서 모든 온전함 가운데 나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온전한 존재들을 창조했다.

B.D. No. 8797

1964년 4월 3일

나로부터 나와 내 사랑을 전할 수 있기 위해 내가 창조한 단 하나 존재인 빛의 전달자 루시퍼가 생성되어 나왔다. 이 때문에 그는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나로부터 나왔고 내 생각으로부터 내 앞에 존재하게 되었고 빛과 능력이 총만한 가운데 즉 나로부터 어떤 부족한 것도 생성되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다를 상태일 수도 없는 가운데 있었다. 나는 이 존재를 내 기쁨을 위해 창조했다. 왜냐면 내 원래의 상품이 사랑이고 사랑은 항상 행복하게 해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에는 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나 자신의 반사체였다. 나 자신이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 안에서 나를 보았다. 그는 말하자면 내 두 번째 나였고 그 안에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가 되어 있어 나 자신과 같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말을 수 없이 축복 되었다. 왜냐면 내 사랑의 힘이 항상 그에게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다.

나는 내 창조적인 능력 가운데 넘치게 축복했고 이런 같은 축복을 한 존재에게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같은 존재를 내 옆에 갖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의 축복에 이제 내가 기뻐할 수 있었다. 내 근원적인 요소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곧 능력이다. 내 사랑의 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머무를 수 없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영적인 창조물들을 생성시켰다. 그러나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창조물들을 기뻐할 수 없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과 똑같이 성품을 가진 내가 영원한 존재인 반면에 단지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를 즉 한 형상을 창조하게 했다. 나는 내 의해 창조된 존재에게 내 사랑의 힘을 비추어 주는 것을 통해 축복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렸다. 이 존재는 이제 같은 사랑에 능력으로 총만하여 그도 마찬가지로 창조적으로 일하기를 원했고 일할 수 있었다. 왜냐면 그는 전적으로 자유 했기 때문이다.

존재들은 내 사랑 안에서 전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항상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다. 왜냐면 내가 존재에게 주는 사랑을 그들은 다시 나에게 마찬가지로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전적으로 내 안에서 싹터 올랐다. 이는 방해받지 않고 사랑이 흘러들어간 것을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방해받지 않고 능력이 흘러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빛의 영의 창조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둘의 사랑의 힘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같은 존재들을 창조했을 때 이런 축복이 이들에게도 함께 하게 되었고 그들은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넘치는 축복 가운데 있었다. 이 과정에 대해 너의 인간들에게 내 계시를 통해 이미 자주 설명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누가 높은 최고로 높은 빛의

존재의 창조자인지 질문을 한다. 왜냐면 너희는 인간으로서 이미 원래 창조 된 빛의 존재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죄로 인해 더 이상 전체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원래의 영들이 내 안에 그리고 빛의 전달자 안에 근원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빛의 전달자들은 내 능력을 사용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했다. 너희는 나와 그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그에게 제한이 없이 제공되는 내 능력을 사용했다.

이로써 너희는 빛의 전달자가 특별한 위치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나 자신으로부터 생명으로 창조 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로부터 타락한 것으로 인해 실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잃어버렸고 깊고도 가장 깊은 것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존재로서 항상 같은 원래 창조 된 영이고 현재는 그가 전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최고의 축복을 누렸고 이제는 상극으로서 일하고 있다. 모든 다른 타락한 존재들은 그들의 원래의 입자로 분해가 되었다. 한때 존재로서 비추인 능력이 여러 가지의 창조물로 바뀌어 지게 되었다. 모든 빛을 잃어버린 빛의 전달자는 그가 원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의 존재 안에 남게 되었고 단지 전적으로 반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는 내 상극이 되었고 내 상극으로써 그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을 섬기고 있다. 왜냐면 한번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나를 택할 것인지 그를 택할 것인지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를 선택해 불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제 항상 또 다시 이 시험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사랑의 힘으로 생성시킨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내 대적자는 타락한 존재들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은 존재들 스스로 한다.

내 대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존재에게 역사를 하는 반면에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존재에게 역사해서 나를 위해 얻으려고 한다. 나를 능력의 근원으로 깨닫고 나를 자신이 존재하게 만드신 분으로 깨달은 수많은 그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내 편에서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축복된 상태에 남았다. 왜냐면 이들이 쉬지 않고 내 사랑의 힘을 받았고 창조하며 조성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들은 나와 빛의 전달자에 의해 공동으로 창조되었다. 이런 자기를 의식하는 존재들은 영원히 영원까지 존재한다. 단지 한때 타락했던 존재들만이 분해가 된 상태에서 깊은 곳에서 다시 성장하기 위해 어느 기간 동안만 자기를 의식하는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으로써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 할 때 자기를 의식하는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러나 항상 단지 존재로써 존재하는 한 대적자만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남았기 때문이다.

영원한 시간 동안 그는 그가 그인 것처럼 남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그의 성품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는 제한이 없이 축복될 것이다. 그러면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내 사랑이 다시 그에게 다시 비추어지게 된다.

아멘

그러나 나 자신을 통해 창조 된 내 첫 번째 빛의 존재 다음에 나와 빛의 존재로부터 두 번째 순위의 존재들의 생성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 인간들의 생각에는 아직 여전히 제한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우리 둘의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존재들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를 똑같이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이 너희에게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 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창조한 것은 같은 능력과 같은 사랑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단지 나 자신의 올바른 형상들인 최고로 온전한 존재들만 있었다. 너희 사람들은 실제로 너의 이웃들 서로 간에 평가 절하한다. 너희는 성숙한 또는 성숙하지 못한 성품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최초의 창조 된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도 나와 내 사랑으로 창조 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알맞지 않다는 것이 이해할만 할 것이다.

영적으로 창조 된 모든 것은 단지 최고로 온전한 것들 있었다. 특별히 창조 된 존재들은 최고의 온전함 가운데 있었다. 그럴지라도 그들 중 일부가 타락했다는 것이 타락한 존재들이 적게 온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생산자인 루시퍼가 자신의 항상 되풀이되는 나에 대한 반발로 인해 가치가 적은 존재를 창조했을 것이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영접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증명을 해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나를 떠나서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사랑의 의지로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들의 일부분도 그를 따랐기 때문이다. 모든 개별적인 존재의 의지가 서로 다르게 강했던 것이 아니고 자유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자유는 어떤 제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모든 방향으로 향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각각의 존재들의 잘못 된 생각이 이런 타락의 두 번째 설명이다. 왜냐하면 생각할 능력은 잘못 생각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내 말씀으로 계속하여 사랑의 비추임을 통해 존재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단지 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강요받지 않았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말씀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내 사랑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깨달음의 능력을 잃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은 혼동되게 되었다. 게다가 그들에게 제한이 없이 흘러 들어간 사랑의 힘이 그들을 거만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의 충만함 가운데 같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그들의 창조주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었고 이 존재는 동시에 요구를 했다. 이런 요구 속에 내가 나 자신을 존재들에게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이 표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런 잘못 된 생각이 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로부터 그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왜냐하면 나에 의해 창조 된 존재들이 유지되려고 하면, 성취될 수 없어야만 한다는 더 나은 깨달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이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다. 타락한 존재들이 단지 자신을 창조한 자의 의지의 희생자라고 말할 수 없음을 말해 두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존재들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들은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타락한 존재들은 거만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창조주 아버지였다는 것에 대항해 거절하는 것은 존재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죄였다.

모든 존재는 똑같이 온전하게 창조 되었다. 이것 만으로도 그들은 아주 큰 죄에 대한 증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창조 된 존재들 중에 일부분이 단지 나에게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음으로 나에게 신실하게 남았다. 반면에 타락한 자들은 내 사랑을 거절했고 이것이 큰 원죄가 되었고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존재들 가운데 한 존재가 이를 해결해야 했다. 타락한 존재들은 어떠한 부족함으로 부족한 깨달음의 능력, 연약한 빛, 또는 연약한 의지 등으로 핑계를 댈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존재들과 같은 성품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의식하는 가운데 거만해져 내 사랑을 능력을 더 이상 영접하지 않았고 이로써 그들은 모든 능력을 빼앗기게 되었다. 만약에 그들의 다시 초기에 그들이 처했던 것처럼 되려고 하면, 그들은 힘들게 다시 능력을 얻어야만 했다. 한 존재가 타락한 데에 어떠한 부족함도 용서받을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근거는 없다.

루시퍼가 그의 의지와 내 능력을 사용해 창조한 끝 없이 많은 창조한 무리들이 가장 밝은 빛과 가장 큰 능력 가운데 서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나를 넘어서서 자기를 더 높였다. 왜냐면 그는 나를 볼 수 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 자신은 끝 없이 많은 무리의 영들이 그의 영광과 함께 볼 수 있었다. 타락한 존재들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도 나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은 점이 없었고 단지 그들이 자신을 채우고 있던, 나로부터 계속하여 받은 끝없는 사랑을 나에게 다시 되돌려주었고 이를 통해 더욱 축복되게 된 셀 수 없이 많은 원래의 영들은 그러나 나에게 신실하게 남았다.

반면에 타락한 존재들의 사랑은 더 이상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단지 받으려고만 하는 자기 사랑이 되었다. 이 과정을 너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남을 것이다. 왜냐면 영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내가 물질 세계와 그 안에 창조물들을 창조하게 된 원인에 대해 대략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희에게 설명해주려고 시도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잘못 된 생각들을 올바르게 고쳐 줄 것이다. 왜냐면 이미 단 한가지의 잘못 된 생각이라도 너희가 잘못 된 생각의 성을 쌓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성을 더 이상 파괴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다. 단지 지식욕만 볼 수 있고 이 지식욕을 성취시키는 것이 혼의 성장을 위해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너희의 혼의 구원에 연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잘하고 있는 일이다.

왜냐면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 자신들의 혼의 성숙함이 내가 전하는 것의 크기를 정하는 제한을 가해서 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모든 것이 내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있을 수 없음을 항상 알아야만 한다.

존재를 창조할 때에 이 연결은 존재하고 있었다. 왜냐면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빛의 전달자는 가장 깊은 사랑 가운데 나에게 복종했고 그러므로 그는 제한이 없는 축복을 내 사랑의

힘이 흐르는 것을 통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사랑의 힘을 다시 내 의지에 따라 사용했다. 왜냐면 긴밀한 사랑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동안에는 그의 의지는 내 의지와 같았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하는 일은 그러나 내 사랑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된 존재들은 그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존재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는 동안에는 나와 함께 동행했던 그가 자신을 변경시켜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된 것은 단지 그의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내 사랑을 거절했을 때 그는 영원한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라도 그 자신이 최종적으로 나를 떠나기로 결정을 할 때까지는 최고로 밝은 빛 가운데 있었다. 그런 후 그는 먼저 깨달음을 잃게 되었고 그런 후에 그의 영이 어두워졌고 그런 후 그는 내 정반대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먼저 자신의 사랑을 받치는 것을 중단하고 내 대적자가 된 상태의 모든 성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잃게 되었다. 그는 부족하게 변화되었고 나에게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내 사랑의 힘이 더 이상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영적인 입자들이 굳어졌고 나는 이를 변화시켜 창조물들 만들어 원래 초기의 상태와 정반대인 물질이 되었다. 이런 타락한 존재들은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나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자유의지 가운데 내 사랑의 힘의 비추임을 받아 드릴 자세가 되었으면, 항상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타락은 자유의지 가운데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도 자유의지 가운데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존재는 다시 제한이 없이 축복받게 되고 축복된 상태로 영원히 남게 된다.

아멘

예수 탄생의 원인과 목적.

B.D. No. 6438

1955년 12월 29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의 계명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하고 너희가 성장하기 원하고 혼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기 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으로 임해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길은 존재가 한때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것처럼 되도록 존재를 다시 형성하는 길이다.

인간 예수는 사랑을 가르쳤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사랑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을 증명했다. 인간 예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로써 빛과 힘을 충만하게 얻게 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인도한 것은 단지 사랑이었고 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그에게 빛이 충만한 지식과 가장 깊은 지혜를 준 것은 단지 사랑이었다. 이런 하나님과 그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서 넘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행하도록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주었다. 즉 그들이 한때 그들의 하나님의 떠난 일로 인해 영의 세계에서 잃었던 이전의 온전함을 다시 얻기 위해 그들의 삶을 자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인류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일로 큰 짐을 지고 있었고 이런 죄짐이 인류를 짓누르고 있었고 인간 예수는 인류를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다. 죄짐이 또한 원하는 사람들을 항상 또 다시 끌어 내렸고 또한 주 예수를 대적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다른 주인에게 성장을 막을 권리를 부여한 사람들을 끌어 내렸다. 그러므로 다른 주인은 타락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단지 가능한 곳에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의 책임이 있는 자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가르침대로 살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를 먼저 꺾어야만 했고 사람들은 먼저 그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했고 사람들이 위로 향하는 길을 가능하게 해주어야만 했고 한 사람이 그들을 도와야만 했다. 왜냐면 그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 혼자서는 너무 연약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간수장이 사람들을 묶고 있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줘야만 했다. 한때 하나님을 대적한 죄짐을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 왜냐면 죄짐이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을 영원히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죄를 없애고 속죄를 행하고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았다.

예수는 그의 형제 루시퍼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생성된 존재였다. 하나님과 함께 머문 천사의 영으로서 그는 타락한 존재의 큰 위험과 그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이런 위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주 큰 사랑은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드렸다. 즉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걸형체로서 영원한 신성을 섬기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 영원한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이 행한 구속역사를 통해 이런 죄짐을 해결해주기를 원했다.

구속사역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가 이 땅에 설교한 가르침대로 사는 일을 통해 자유롭게 되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묶여 있었고 그들의 의지가 죄짐으로 인해 너무 약해져 그들이 대적자의 영향으로 항상 또 다시 타락했기 때문이다. 혼들은 대적자에게 속했고 대적자는 절대로 혼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짐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인간 예수 안에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짐을 해결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깨닫고 예수의 긍휼의 역사를 자신을 위해 활용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돌아 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일을 믿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삶과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자신을 그들이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한 빛과 능력으로 충만한 존재로 자신을 다시 형성하면, 그들이 자유롭게 되었다.

아멘

예수의 혼은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육신을 입었는가?

B.D. No. 8750

1964년 2월 11일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는 지식으로 인도하면서 항상 또 다시 내 사랑을 너희에게 계시한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밝은 빛과 같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을 드러내 알게 해주고 너희 혼의 성장을 의미하는 너희의 깨달음의 정도를 다시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항상 사랑에 기초해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만 한다. 너희가 어느 정도의 사랑의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고 사랑이 너희 안에 깨달음의 빛을 항상 밝게 비춰줄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내가 너희에게 답변해줄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단지 너희가 알기를 갈망하는 영역을 알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하지 않은 모든 높은 영들은 가장 높은 목표인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기 위한 깊은 곳을 통과하는 과정을 가기 위해 이 땅으로 육신을 입는다. 그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 육신 안에 거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한때 타락했던 모든 원래의 영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고 내 대적자가 그들에게 시도하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들은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 진실로 깊은 곳을 통과해야만 한다.

한때 타락했던 존재로서 나에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느 때든지 빛의 존재들이 내려왔다. 이런 빛의 존재들의 사랑은 아주 강하고 깊어 계속해서 도울 준비되어 있고 단지 내 길 잃은 자녀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 나는 그들이 돕기 위해 이 땅에 임하길 원하면, 그들을 막지 않았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된 그들은 항상 나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내 사랑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최고의 온전한 피조물로서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던 존재들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려는 빛의 존재는 없다.

인간 예수로써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시킨 혼도 마찬가지로 그는 내가 자율적인 생명을 부여한 나에 의해 원래 초기부터 사랑의 빛의 비추임으로 생성된 빛의 영이었다. 이 영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자신이 맡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첫 인간이 실패할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인간 예수로써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다. 그는 실제 처음부터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역사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신실하게 남은 존재들인 그들이 나에게 남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로써 무한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내 의지와 내 힘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런 혼이 이 땅으로 임했고 이 혼은 전에도 이미 빛의 존재로써 나를 섬겼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을 이뤘다. 즉 이 혼은 빛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 자신이 이 혼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런 모든 빛의 영이 나에게 하나 형체였지만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단지 잠시 볼 수 있었을 지라도 지속적인 형체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빛의 영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들 가운데 같은 육체의 입자 안에서 볼 수 있게 역사하며 가르침을 주고 대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후에는 사라졌던 영의 존재이고 영의 존재로 머물렀다.

실제로 이런 높은 빛의 존재들이 이 땅의 육신을 입는 일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보냄 받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내 의지를 알려주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들의 혼이 왜 위험 가운데 살고 있고 이 땅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빛의 존재가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일과 나 자신이 빛의 영을 통해 나 자신을 알려주는 일인 빛의 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 사이에 차이를 뒤야만 한다. 그러면 이런 빛의 영은 인간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내 겉형체가 아니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기 위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위로부터 직접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들의 의지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육신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람도 내 겉형체로 사용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겉형체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경우에는 겉형체가 단지 잠시 동안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들이 긴급하게 내 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혼이 겉형체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되기 전에 이제 여러 차례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는 일을 너희는 항상 사랑인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할 때 영적인 형체를 택하여 단지 영적으로 나타난 일로 영접할 수 있다. 비록 나 자신이 내 말씀을 통

해 또는 한 사람을 통해 나를 나타낼 수 있고 이 한 사람이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을 지라도 내가 인간이 되기 전에 예수의 혼이 육신을 입었던 일은 없었다.

예수의 혼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을 받았다. 이 혼은 진실로 가장 높은 빛의 영이고 나에게 의해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다. 즉 이 혼은 내 힘과 아주 큰 내 사랑이 첫 번째로 창조한 존재의 의지로부터 생성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인 나 자신이 단지 최고의 빛의 혼인 예수 안에서 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혼은 빛의 영으로써 전에 이미 아주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여 내가 그들에게 이런 빛의 존재를 보낼 수 있었고 이 빛의 존재들을 통해 나 자신이 직접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나를 섬겼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빛의 존재들이 이전에 인간으로 육신을 입었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전해줘 사람들과 나와 연결을 유지시키고 동시에 나에게 말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거했던 일을 진실로 영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잘못 된 상상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예수 혼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택함을 받았고 처음부터 첫 사람의 실패를 깨닫는 가운데 이런 공허의 사역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육신을 입었다고 말하는 일은 잘못 된 일이다. 왜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역사는 한번뿐인 역사이고 한번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를 인류뿐만 아니라 빛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면 이와 같은 역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 예수는 많은 존재들 중의 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는 너희 인간들과 빛의 나라의 모든 존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이 영원히 볼 수 있게 남기 위해 형태로 택함받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왜냐면 나와 루시퍼의 사랑에서 발산되어 나온 첫 번째 영으로써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깊어 그가 단지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 합당한 존재였고 그러므로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이전에 거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가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그가 귀환을 시키려는 내 계획을 알았고 그는 항상 전적으로 모두 내 의지에 따랐고 빛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로써 내 뜻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 전적으로 나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와 나는 하나가 돼야만 했다. 왜냐면 내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가 내 안에서 전적으로 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들이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빛의 정도에 다시 도달하게 되면, 그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인 예수를 이 땅으로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B.D. No. 2452

1942년 8월 20일

**예**수님이 하나님인지에 대한 질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질문이다. 단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의 신성을 설명해줄 수 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지혜롭고 전능하고 사랑이 충만한 신성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성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 즉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들에게 발산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창조주와 그의 창조물 사이에 절대로 전혀 끝날 수 없는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또한 항상 신성이 항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한 인간의 걸형체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써 이 사람 자신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정도로, 신적인 것을 자신 안에 가질 수 있고, 이제 그의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은 사랑의 길을 걷지 않는 한, 그는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지혜는 사랑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를 즉시 파악하고, 그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힘인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 발산의 흐름의 영역 안에 있고, 따라서 그가 또한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삶의 결과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예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산의 영역 안에 거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붙잡힘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충만하게 되었고, 강한 의지로 충만했다. 그러나 사랑과 영과 힘과 의지는 영원한 신성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또한 하나님과 같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예수 자신이 신적인 존재였다. 그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 간주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원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음을 깨달았고, 아버지와 완전하게 연합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사랑의 삶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 연합을 이루었다.

아멘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그는 내 영원한 원래의 사랑에서 생성된 존재이다. 내가 원래 창조한 영들의 큰 무리가 나를 떠나 타락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나에게 드렸고 비록 그가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나를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로 깨달았다. 그는 일회적인 역사를 통해 나를 떠나 타락한 자녀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면서 그의 아주 큰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기를 원했다. 그의 사랑이 이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를 허용했고 내가 그가 이 땅으로 임하는 일에 동의했다. 그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었던 빛의 나라를 떠나 최초의 타락한 존재였고 내 상극이 되어 나를 대적하는 영인 루시퍼의 나라인 어두운 영역으로 임했다.

나는 내 아들을 땅으로 보냈다. 그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곁형체로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나는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 끊어졌고 그들은 끝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나와 가장 멀리 떨어진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는 내 피조물이고 내 사랑과 권세와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의 의지를 통해 생성된 존재들이다. 루시퍼는 원래 초기에 내 힘을 사용하여 피조물들을 생성되게 하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었다.

내가 내 형상으로 생성되게 한 원래 영이 타락하는 일을 실제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막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과 지혜로 타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최종 목표로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로 이런 목표를 이뤄야만 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의지는 내 대적자의 영인 루시퍼의 영향으로 아주 약해져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도움은 의무단계로서 내 뜻대로 물질적인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존재들에게 전혀 힘이 없었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단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아주 큰 긍휼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길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그들 안에 사랑의 불씨를 넣어 주었다. 그럴지라도 엄청나게 큰 원죄의 죄짐이 남아 있었다.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에게 대적한 죄짐이 타락한 원래의 영들 각자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죄짐은 신적인 공의 법에 따라 해결돼야만 했고 이런 타락한 존재들이 스스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속죄가 이뤄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머물렀던 원래의 영이 땅에서 구속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타락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강해서 이런 구속 역사가 요구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가 자원하여 짊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으로서 이 땅의 과정을 가기를 원했고 인간의 곁형체인 예수 안에 육신을 입고 최고의 사랑이 필요한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 이 길이 또한 영원한 신성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왜냐면 나는 단지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사랑으로 나 자신과 연결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나는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형성한 그릇을 내가 거할 그릇으로 택했다.

예수의 혼은 실제 나를 향한 사랑을 이 땅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탄생했을 때 그의 혼이 들 어선 영역은 루시퍼의 나라였고 그의 혼은 루시퍼의 공격을 받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루 시퍼의 일부였다. 그가 인간으로서 타락한 형제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또 한 내 아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루시퍼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하고 떨쳐내기 위해 사용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이웃들처럼 투쟁해야만 했고 사랑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공격 하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를 방해하려고 시도했고 그의 인간 의 겉형체가 모든 유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고 이로써 자신 안의 사랑이 점점 더 강하게 되어 발산되어 그가 또한 자신의 육체의 겉형체도 영화시킬 때까지 그의 혼이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고 이로써 그의 사랑의 빛은 항상 더욱 밝게 빛나고 대적자가 그가 행하는 일을 막기 원하는 일을 행할 때 까지 그의 혼이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다. 대적자가 막기 원하 는 일은 그가 사랑으로 초인적인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내 원수 에게 사랑으로 대항하고 사랑으로 그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그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고 대적 자가 더 이상 포로로 가둘 수 없는 혼들을 위해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충만하게 채운 사랑이 긍휼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 사랑은 바로 나 자신이었 다. 그러나 내 아들이 이런 어두움을 거쳐야만 했고 루시퍼의 나라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므 로 그는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으로서 소유했던 자신의 빛과 힘을 뒤에 남겨 뒤야만 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 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아가는 길인 사랑과 고난의 길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인간 예수가 진실로 자신의 이웃보다 앞서 갔던 길이었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다. 왜냐 면 그의 혼에 원죄가 없었고 그의 사랑이 그에게 그의 인간의 육체를 영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이 땅의 과정을 갔다. 왜냐면 사랑에 저항 하는 일이 단지 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인간의 심장 안에 내 신적인 사랑의 불씨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사랑에 불을 붙이고 최고의 화염으로 타오르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 들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면 단지 의지의 연약함이 사랑을 행하는 일 을 막을 수 있고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그가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 중 하나이기 때문 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의 긍휼의 역사가 너희에게 헛되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가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죄 짐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겉형체 안에 거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B.D. No. 8537

1963년 6월 22일

**순** 수한 혼을 필요로 하는 사명 때문에 예수의 혼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기 위해 빛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임한 일에 관해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다. 하나 님 자신이 예수의 혼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단지 순수하고 죄가 없는 혼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어떤 말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의미를 전

달할 수 있느냐? 창조물을 거치는 긴 성장 과정을 가야만 하고 부족한 상태로 인간으로 육신을 입어야 하는 인간의 혼과는 반대로 예수의 혼은 타락하지 않은 혼이었다.

이 때문에 예수의 혼이 외부로부터 침범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과 말할 수 없이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는 성숙하지 못한 물질이고 대적자의 영향으로 구속받지 못한 입자들로부터 심하게 공격을 받았고 육체는 모든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성숙하지 못한 육체의 입자가 붙어 있는 육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예수에게 요구했다.

예수의 혼은 전적으로 순수하게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그에게 달라붙었고 혼은 이들을 떨쳐 버려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했다. 외부로부터도 마찬가지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 예수에게 침범했고 환경이 예수의 혼에 역사했고 이로써 예수의 혼은 모든 내적인 싸움을 견뎌내야만 했다. 이런 내적인 싸움은 타락한 혼들도 견뎌내야만 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혼이 온전했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일은 쉬웠을 것으로 여기는 관점은 잘못 된 관점이고 정반대였다. 예수의 혼은 순수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환경 아래서 더 심한 고통을 당했고 그의 혼은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침범해오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사를 통해 이웃이 그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빛의 혼이 거해야만 했던 어두움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럴지라도 그는 이런 죄악 된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다. 모든 루시퍼적인 것들이 실제로 예수의 혼을 공격했다. 그러나 예수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일도 이를 수 없었다. 예수는 모든 시험을 견디어 냈고 그는 자신의 대적자에 대항해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항해 싸웠다.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사랑을 통해 인간 예수 자신의 육체의 악한 영들의 입자를 영화 시키는 일을 이뤘고 영원한 사랑 자신이 그를 소유하게 되었다. 영원한 사랑은 죄악 된 혼에게는 그가 소멸되지 않게 하면서 절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

너희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전하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임했다" 이고 "그가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왔다" 가 아니다. 비록 루시퍼적인 존재들이 예수의 혼을 아주 크게 둘러싸지만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외부로부터 그의 혼에게 다가온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적했고 육체를 통해 그를 공격하거나 사탄의 보냄 받은 자로써 그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구속되지 못한 존재가 공격을 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의도한대로 자신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의 순수한 혼은 저항을 했고 사탄적인 것을 물리쳤고 그는 자신의 육체에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을 성숙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였을 때 육체가 영화되어 혼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혼이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선 것처럼 혼은 루시퍼의 세력 안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혼은 패배당하지 않고 루시퍼의 세력에게 저항했다. 왜냐하면 혼은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 사랑이 혼에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높은 곳으로부터 사랑을

가져왔고 사랑은 혼을 내어주지 않았고 혼은 영원한 사랑과 항상 더욱 하나가 되어 갔다. 이로써 이 땅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하나가 되는 일이 이뤄졌다.

인간 예수는 자신의 큰 사랑과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통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도 싸워야만 했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고 이 불씨에 항상 양분을 제공하여 밝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위해 예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반면에 예수는 항상 단지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 했고 이 사랑이 바로 자기 안에 거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은 단지 죄가 없는 존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는 절대로 그의 사랑을 거절했던 타락해 창조물을 거치는 성장 과정을 갔던 혼 안에 거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원죄가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혼이 타락한 혼이었다면, 인간 예수의 혼은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구속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는 가장 큰 비밀이고 비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한 순수한 존재가 인간의 원죄를 위해 속죄를 완성해야만 했다. 왜냐면 타락한 존재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고 스스로는 자신의 간수인 대적자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능력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빛의 혼이 대적자와 대항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예수는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왜냐면 그의 능력이 사랑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에 관해 설명해줘야만 한다. 왜냐면 잘못 된 관점은 잘못 된 결과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예수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에 대항해 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타락한 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아직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었고 타락한 혼이 대적자에 대항해 이긴 적이 한번도 없었고 구속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싸움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못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절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사랑의 불씨를 받았을지라도 이 불씨가 절대로 화염으로 불타오를 수 없었을 것이고 대적자가 타오르게 하는 일을 막았을 것이고 타락한 존재 자신이 너무 연약했다.

너희 사람들이 예수의 혼에 루시퍼적인 부분이 있고 예수의 혼이 한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었다는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너희는 잘못 된 생각으로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를 단지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이 인간

이 된 문제에 관한 순수한 진리가 너희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진리가 너희 사람들에게 올바른 빛을 주고 진리는 항상 단지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B.D. No. 8353

1962년 12월 12일

**나**는 어둠 속으로 내 빛을 주기 위해 빛이 있는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왜냐하면 영의 해는 졌고 어두운 밤을 한 줄기의 빛도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가장 큰 위험에 처했다. 그들의 위험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들을 해방시켜 줄 구원자를 불렀다. 왜냐하면 아직 소수의 사람들이 내 대적자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지 않았고 사랑의 삶을 살았고 아직 나와 연결을 아직 완전히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환난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기를 나에게 청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내 사랑에서 생성되었고 원래의 영들이 나를 떠나 타락했을 때 나에게 신실하게 머물렀던 빛의 영이 단 일회적인 역사이지만 그러나 온 인류에게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 자신을 나에게 제공했고 그는 이 땅에 임해서 사람들 가운데 거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는 큰 사명을 맡았다. 이 사명은 자신의 세상의 곁형체를 준비하는 나 자신이 거하는 거처로 섬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내 피조물들을 돌보기 원했고 나 자신이 그들의 큰 죄를 해결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큰 죄는 그들이 한때 자원하여 나를 떠나 타락한 죄이다.

내 사랑의 자녀인 빛의 존재가 나를 위해 이런 속죄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인간으로서 아기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과정을 시작했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은 특별하게 고난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의 거처로 섬기기 위해 그의 육체 또한 영화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가 탄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기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의 엄청난 빛이 아기의 아주 지혜로운 표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혼은 내 대적자에 의해 특별한 공격을 받았다. 내 대적자는 그에게 속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시켜 그의 몸을 차지하도록 이끌었다. 이로써 육체가 이런 영향으로 강한 유혹에 빠졌고 인간 예수는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맞서 싸워야만 했다.

인간 예수 안의 사랑이 그에게 싸울 힘을 주었지만 그는 특별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고 그의 모든 이 땅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의 고통을 알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원하여 이 길을 갔다. 그의 이 땅의 전체의 삶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었고 사랑 자체인 나 자신이 또한 항상 그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가 사람들의 큰 죄를 속죄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었다.

그는 내 아들이었고 이 땅에서 나와 완전한 하나가 된 빛의 혼이었고 그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를 일을 완성했다. 이런 일은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의 목표이다. 즉 피조물에서 내 자녀가 되는 일이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의 목표이다. 그러면 자녀는 자유 의지로 내 의지를 전적으로 따르고 이로써 최고로 높은 완성의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예수는 타락하지 않

은 원래의 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을 이 땅의 삶을 통해 자유 의지로 이뤄야만 했고 깊은 곳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의 혼도 내 대적자의 모든 공격에 노출되어야만 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또한 타락하게 만들 수 없었던 그의 혼을 소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땅은 내 대적자의 나라이고 그러므로 이 땅은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의 혼은 또한 모든 루시퍼의 충동과 공격에 노출되었고 인간 예수는 이에 저항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원한 아버지 편에 서야만 했고 나 자신을 전우로 삼아야만 했다. 그가 끊임없이 내 사랑을 구하고 또한 그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 내 사랑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전우로 삼았다. 왜냐면 사랑은 자신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간 예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사랑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랑으로 저항할 수 있었고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인류에게 진실로 구세주가 보내졌고 이미 오래 전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임했고 빛이 이 땅에 임했다. 예수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했던 나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의 심장에 빛을 비추었다. 빛이 어두움을 물리쳤고 내 대적자에 대항해서 싸울 전사인 예수가 나타났고 내 대적자를 이겼다. 그러나 예수의 무기는 사랑이었고 내 대적자자는 사랑에 맞서 헛되이 싸웠다. 내 대적자는 사랑 앞에 항상 굴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사랑 자체이고 한때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자보다 진정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다.

B.D. No. 8667

1963년 11월 8일

**인**간 예수의 이 땅의 삶은 넘치는 고난이 충만했다. 그의 순수한 혼은 순수하지 못한 어두운 영역에 거했다. 혼은 이런 영역을 고통으로 느꼈다. 이 때문에 어린 아이로서 예수는 비록 그가 자기 자신이 성취하기 위해 나에게 제안한 사명을 아직 알지 못했을지라도 즐거울 수 없었다.

때때로 그의 혼의 원래의 성품인 빛이 나타나서 내 영이 그를 통해 표현하여 그는 아이로서 단지 전적의 능력과 빛을 가진 가장 순수한 빛의 존재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의 사명을 믿게 하기 위해 이런 기적은 단지 종종 일어났다. 이런 특별한 능력의 나타남이 소년 예수를 그가 다시 인간적인 자연적인 상태에 있을 때 불안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를 항상 그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켰다.

그 자신의 모든 사랑이 나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항상 점점 더 나에게 메이게 되어 그가 가장 밝은 사랑의 빛 가운데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한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가 자기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구속해야 함을 깨달을 때까지 그가 구속사역 전체를 의식하게 될 때까지 그가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가야 하는 힘든 십자가의 길을 자기 앞의 볼 때까지 내 사랑이 그를 충만하게 채운다.

그의 고난의 길은 그에게 모든 상세함으로 보여 졌다. 이런 지식이 그의 혼을 침울하게 했고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 이런 상태로부터 그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항상 단지 불행한 피조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스스로 자유의지로 십자가에 길을 갈 결정해야만 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이를 위해 아주 고통이 심해서 모든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구속사역을 실행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했다.

왜냐면 예수는 내 의지에 의해 이런 십자가의 희생을 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의 혼이 길 잃은 자녀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유의지로 자신을 나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의 혼이 이런 목적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이제 인간으로써 이런 결정을 위해 싸워야만 했다. 왜냐면 이제 다시 자유의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절대로 한 사람을 그의 의지와 반대로 이런 속죄의 희생을 하게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으로 들어진 제사만이 타락한 존재들에 원죄를 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사는 단지 내 대적자에게 속한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 예수에게 행한 가장 끔찍한 육체의 고통과 멸시뿐만 아니라 그의 전 생애가 십자가의 길이었다. 왜냐면 빛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로 내려온 그의 혼이 묘사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아주 빠르게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런 지식이 "인간 예수"에게 아주 크게 부담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실제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이 땅의 삶을 기뻐하는 가운데 별을 받지 않고 즐겨도 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거부했다.

왜냐면 그의 삶은 그가 단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항상 두려워하게 하는 자신을 절대로 기쁘게 만들어 주지 않는 항상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나에게 도피함으로써 그는 평안과 강함을 얻었다. 그런 후 그의 희생하려는 의지는 그의 계속하여 커진 사랑을 통해 항상 강해졌다.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힘든 짐이 되는 이 땅의 삶을 살았고 항상 단지 내 의지에 복종하려고 이웃들을 섬기려고 노력했다. 이로써 자신의 능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 능력을 통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왔다.

본래의 구속사역 전에 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의지를 알려주고 그들을 경고하고 격려해 사랑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들을 올바른 삶을 살게 자극하기 위해 그래서 내 구속사역을 올바르게 깨닫고 열심히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의해 영접될 수 있게 모든 순수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진리를 전해줘야만 했다.

예수가 그의 죽음을 통해 원죄를 사해준 후에 빛의 나라 안의 나에게 돌아오길 원하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을 그는 그들에 앞서 먼저 갔다. 예수의 공훈의 사역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엄청나게 커서 너희에게 충분히 설명해줄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관한 지식이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진리 합당하게 전해질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일찍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만을 볼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의 큰 사명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의 구속사역은 너희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너희가 언젠가는 어두움의 나라를 벗어나서 빛의 나라에서 영접되어 지길 원하면, 이를 영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든 진리 안에서 이에 관해 가르침을 받을 때 비로소 너희는 이를 영접할 것이다. 이런 가르치는 일은 유일하게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인도할 수 있는 내 영을 통해 항상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예수의 몸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굳어진 입자이다

B.D. No. 8756

1964년 2월 18일

**너**희는 나로부터 배우라. 너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나에게 질문하라. 왜냐면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줘서 너희가 너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해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너희가 이해할 수는 있는 능력에 합당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필요하면, 이성의 사람들에게도 너희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인간이 되는데 내 겉형체로써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최고로 높은 빛의 영과 인간 예수의 몸의 상태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타락한 영들과 타락하지 않은 영들도 물질로 된 겉형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땅의 과정을 거친다. 이 물질은 순수하지 못한 다른 원래의 영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물질은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

혼들은 그들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온전함에 이르러야 한다. 혼은 모든 영적인지 못한 것을 자신에게서 물리쳐야 한다. 혼은 모든 유혹에 저항을 해야 하고 모든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들을 자신에게서 물리쳐야 하고 순수하지 못한 충동과 욕망과 싸워야 한다. 덕스럽지 못한 모든 성품을 덕성으로 바꿔야 한다. 혼들은 그들의 모든 성품을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

혼들은 자신들을 다시 끌어내리려는 내 대적자로부터 항상 이런 일을 하게 자극을 받는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로부터 항상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물질로 된 겉형체 안에서 치르는 마지막 정화의 과정이다. 인간은 남김 없이 혼이 영화되는 전적인 성공할 수 있다. 만약이 혼이 가장 큰 사랑 안에서 이런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역사하려고 할 경우에 만약에 혼 자신이 자신 안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을 몸에게 전해주기 위해 몸을 얻으려고 할 때 혼이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죽이고 몸이 항상 전적으로 세상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리고 혼과 몸이 함께 자신 안의 영에게 속하게 되어 가장 깊은 나와 의 연결에 들어가게 되면, 혼은 몸을 동시에 구속하고 영화시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왜냐면 모든 물질로 된 겉형체는 대적자에게 속했고 묶여 있는 상태 동안에만 대적자로부터 직접 조종을 받을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혼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대적자로부터 오는 시험들에 놓여 있게 되고 이런 시험들에 저항해야만 한다. 몸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의 이런 추구를 항상 어렵게 만든다. 왜냐면 이런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은 아직 어두움의 영역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혼이 사랑을 행하면, 혼은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몸은 항상 혼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참여한다.

예수의 혼은 물질로 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왜냐면 물질로 된 걸 형태인 그의 몸은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에 속하지 않은 내 의지에 의해서 굳어진 영적인 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몸이 내 대적자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타락하지 않은 존재에게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과 십자가의 고통이 충만한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통해 자신이 영화 되야 하는 성취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의 혼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 그 혼 자신이 몸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빛에 끌려서 다가온 수많은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 이 빛을 고통으로 여기고 빛을 꺼버리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포위가 되었다. 빛의 혼이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섰고 자신의 영역에 들어선 빛을 꺼버리려고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 영역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에게 달려든 모든 악한 영들을 혼은 사랑 안에서 견뎌야만 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

왜냐면 가장 큰 사랑이 예수 혼이 이 땅에 임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이 혼이 포기하지 않게 했고 자신에게 매달리는 힘이 없고 불행한 존재들에게 이 사랑을 능력으로 사용했고 그의 사랑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들을 강제로 물리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몸도 모든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의 공격을 받았다. 모든 인간의 육체에 거하고 있는 모든 욕망이 몸 안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 외부로부터 주변세계로부터 예수의 몸 안에 자연적인 욕망을 일깨우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혼은 받았다. 왜냐면 그의 몸도 비록 사탄적인 입자가 들어있지는 않고 단지 내 의지에 의해 죄 없이 만들어 졌지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즉 그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될 수 있기 위한 순수한 그릇이었지만 그의 구속사역 때문에 몸은 모든 내 대적자의 모든 공격에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에 다른 모든 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적인 유혹에 반응을 했다. 예수는 모든 이런 자신 안에 유혹을 극복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인간적인 느낌이나 세상을 향한 모든 소원이나 모든 정욕을 극복해야만 했다.

그는 저항을 해야만 했고 사랑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모든 시험에 스스로 대항해야만 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영화시켜야만 했다. 그는 이런 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그의 사랑이 능력을 주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구속사역도 완성했다. 인간 예수는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체험하고 극복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는 모든 인류에게 모범이 되야 했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이 목표에 도달해야 하고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영화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면 그에게 닥친 시험들은 특별히 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적자 스스로 자신의 추종자를 잃지 않기 위해 그를 대항해 싸웠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 자신을 거하게 할 인간적인 걸형체는 순수하고 죄가 없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 몸의 입자들이 나를 떠났던 원래의 영에 속해 있었다면, 나는 이 몸 안에 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왜냐면 바로 이 겉형체가 영원에 영원 동안 볼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와 최고의 빛의 존재인 내 독생자와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 이후에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구속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물질로 된 겉형체도 구속되길 원할지라도 구속될 수 없었다.

이로써 나도 인간 예수 안에서 내 영이 그 안에 거하면서 기적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실제로 역사했던 것처럼 역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 지식이 전해지면, 너희는 이로 인해 너희를 오류에 빠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나 자신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라. 왜냐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얼마나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나에게 문의를 하면, 나는 모든 오류를 수정해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7454

1959년 11월 12일

어떤 사람도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생성되어 나온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표에 도달해야 함을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창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의 온전함에 자유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자유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실제 자신으로부터 전적으로 온전하게 존재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존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존재가 계속하여 빛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었다. 그러므로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가운데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성되어 나온 것과 다르게 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원했다. 그는 존재 자신의 고유의 의지로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은 의지를 가진 상태로 머무는 존재를 원했다. 비록 자유의지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그는 자유의지로 최고로 온전한 진정한 형상으로 머무는 존재를 원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을 창조할 수 없었고 그는 단지 존재 스스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형상으로 남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인도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온전함의 증거로써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자유의지가 모든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의지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남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지의 결정이 존재들을 자녀가 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끝 없이 멀어지게 하고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은 상태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한 모든 목적과 목표이다.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진정 사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래 초기에 창조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비추임을 받았었다. 존재들은 깊은 곳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의 힘을 잃었다. 왜냐하면 존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적인 존재로써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비추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 하나님과 존재가 직접 연결되어 사랑이 방해받지 않고 존재 안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로써 아버지와 자녀가 하

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인간 예수는 자신의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신적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인간 예수의 최고의 목적은 사랑을 통해 자신이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그가 하나님으로 승천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이 즉 사랑이 사람의 곁형체를 전적으로 충만하게 모두 채워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인간이 된 것이다. 이런 공허의 역사는 단지 사랑이 이를 수 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안에 육신을 입은 것이다. 그는 죄가 없고 자유의지로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자신 안으로 영접한 곁형체를 선택했다.

이처럼 인간 예수는 사랑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처럼 했다.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심.

B.D. No. 8091

1962년 1월 30일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영을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전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를 섬기기 원하는 너희는 빛의 전달자로서 나에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이웃에게 밝혀 주기 위해 이 길을 먼저 가야 한다. 나는 무엇에 관한 설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안다.

나는 어디에 그들의 생각의 오류가 있는지 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빛이 필요함을 안다. 모든 잘못 된 생각은 단지 혼돈하게 만드는 영적인 어두움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이 땅의 삶 동안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이 땅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깨닫고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에 합당하게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에 관해 가르침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인간이 된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가장 크고 가장 온전하고 무한한 영인 나 자신이 인간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곁형체로써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그의 곁형체는 실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신적인 사랑의 영으로 전적으로 모두 충만했던 예수 안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없었음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이었고 내 피조물인 너희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 남았다. 너희는 영원한 신성을 제한을 가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상상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무한의 세계를 충만하게 채운다. 왜냐면 제한이 없이 역사하는 내 능력이 이런 무한의 세계로 발산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런 능력을 발산시키는 원래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나를 절대로 제한을 가진 존재로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한 형체를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 안에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형체가 단지 내 원래의 성분이 되게 할 수 있고 너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형체 안에서 이 형체가 나 자신과 똑같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이 형체가 인간 예수이다. 왜냐면 내 피조물들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가진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이 너희가 볼 수 있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죄악 된 인류를 위해 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그 안에서 거한 한 사람에 의해 완성이 된 사랑과 공휼의 역사를 믿으면,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볼 수 있는 과정을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예수 안에서 상상해보는 것 외에는 나를 상상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무한한 가장 큰 영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다. 왜냐면 그의 인간적인 겉형체가 영화가 되었고 내 사랑의 영으로 전적으로 비추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의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을 영화 시켰을 때까지만 단지 사람이었다. 그러나 겉형체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십자가에 죽음을 견뎌야만 했다.

왜냐면 인간 예수는 자신의 이웃들을 위해 큰 죄짐을 구속하기 원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완성을 했다. 그러므로 예수 안의 나 자신은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한때 나로부터 존재로 발산되어 나온 너희 모두의 원래의 성분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로부터 떠나갔을 때 예수는 나에게 남았다. 예수는 나로부터 발산 된 즉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너희에게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그의 큰 사랑이 인간으로써 나와 연결을 유지했다. 그는 항상 단지 내 사랑을 갈망했다. 나는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전적으로 모든 채워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전적으로 비추어주어서 그를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형체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되었다. 나와 그 사이에 더 이상 분리가 없었다. 그는 전적으로 나와 융합이 되었다. 그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내 피조물들은 이제 만약에 그들이 구속을 받고 영원히 축복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대면해 볼 수 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8250

1962년 8월 24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 더욱 어두워지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인해 잘못 된 생각에 도달했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은 인격화 될 수 없음을 항상 또 다시 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성을 모든 무한한 것을 채우고 있는 능력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형태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능력은 한 형체를 전적으로 채울 수 있고 신적인 능력이 전적으로 비추어 채워지는 과정이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은 영원한 신성의 근원적인 성분이다. 이 사랑은 무한한 세계를 향해 쉬지 않고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생성되게 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런 신적인 사랑의 힘이 인간의 형체 예수를 비추어 채웠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되었고 전적으로 영화 된 인간적인 겉형체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예수는 이제 상상해볼 수 있는 신성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인격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모든 피조 된 존재들이 도달해야 할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목표에 도달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완성은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원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렇지라도 너희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면, 이는 오류로 인도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인격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단지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옆에 계신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화 된 형체에 비추어 채울 수 있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힘은 단지 신적인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을 영화시킨 존재만이 이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들을 지혜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의지나 권세로 인정을 하면, 실제 유효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가 이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면, 이런 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볼 수 있는 예수 안의 신성을 설명한다. 반면에 세가지 인격을 가진 신성은 전혀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이로써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 왜냐면 세가지 서로 다른 신들을 불러서는 안 되고 단지 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예수 안에서 경배받을 수 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때 그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동시에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B.D. No. 5213

1951년 9월 16일

**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내 나라로 들어갔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인간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했고, 다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일은 너희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각 사람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수수께끼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의 몸과 그의 생각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의 몸과 그의 생각 모두가 아직 물질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동안에는 사람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진리에 전적으로 합당하게 주어진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의 비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이로써 그 안의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성장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역사했고 인간으로 고통을 받았다.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전 인류에게 유익이 되려면 인간이 구속사역을 완성해야만 했다. 왜냐면 내 안의 거룩한 하나님이 고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은 말로 말할 수 없게 컸고 커야만 했다. 이로써 이런 고통이 인류에게 그들의 큰 죄짐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라도 구속의 사역이 너무 낮게 평가받지 않게 한다.

사람은 내 십자가의 길의 고통과 고난을 측량할 수 없다. 그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는 감각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면 고통이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정도였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서 그런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의 작은 부분으로도 사람의 삶을 끝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몸이 영화되어 엄청나게 강한 의지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엄청난 죄짐으로부터 인류의 해방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행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갔고,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너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받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 것도 아끼지 않았고, 내 고통과 고난을 가장 꼼꼼하게 묘사하는 일로도 내 고통과 고난을 너희에게 비슷하게라도 보여줄 수 있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나로부터 인간 예수로부터 거룩한 신성이 벗어나, 인간 예수가 홀로 역사를 완성하게 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자신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 밖에 자신을 두고 강하게 머물기 위해 먼저 싸워야만 했던 꼼꼼한 싸움이 일어났다.

예수는 큰 영적인 위험에 처한 인간을 위한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이런 아주 큰 사랑때문에 내가 희생제사를 받아 들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완전하게 순수하고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존재가 고통당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희생제사를 받아들였고, 인간 예수를 그의 원수요 그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넘겼다. 왜냐면 그가 성취한 역사는 모든 영원을 위해 유효했고, 그의 역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축복되지 못한 모든 영적인 존재의 구속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혼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고, 영의 존재로서 모든 속죄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모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은 같은 약점을 가지고 이 땅의 길을 가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만 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보여줘야 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빛의 존재가 모든 약점과 실수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의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사용한 의지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이미 영과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이런 나와 영의 연합이 인간이 힘을 넘치게 얻게 해주어, 이로써 영원한 아버지의 영은 인간이 나와 연합하여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그가 가장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가 이 땅의 모든 것과 영의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있고, 그가 자신과 그의 육체와 그의 혼을 사랑을 통해 이 땅에서 전적으로 영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단지 한 사람이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고, 제시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목표로 이끄는 길을 즉 아버지의 집의 나에게 이끄는 동일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움이 없이는 너무 약했다. 왜냐면 그들에게 바로 사랑을 행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전의 죄의 결과로 인한 의지의 연약함을 알았고, 그들이 더 강한 의지를 갖도록 그들을 돕기 원했다. 내가 실제 인간 예수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그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모든 풍성함으로 그의 심장 안으로 이끌었다. 왜냐면 내 원초적 성품은 사랑이고 그의 큰 사랑이 나와 영의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인간 예수는 실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의 사랑으로 가장 높은 것을 얻었고, 그는 높은 빛의 존재로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으로서 빛의 나라로 돌아갔다. 왜냐면 그가 사랑을 통해 나와 완전히 융합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사람들이 나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볼 수 있게 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각자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를 향한 그의 사랑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그의 죽음과 말할 수 없는 그의 고통을 통해 너희를 위해 죄짐을 속죄했기 때문이다.

아멘

천사들의 타락. 성 금요일 계시.

B.D. No. 5361

1952년 4월 11일

**오**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 모두는 내 사랑에 붙잡혀 있고, 너희를 위해 너희가 나와 원래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대항하는 관계를 벗어나, 나와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변화를 위해 너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제공되고, 내 끝없는 사랑이 너희가 실패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도움을 준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큰 사랑도 내 권세로 너희의 의지를 바꾸는 이러한 가지일을 할 수 없다.

너희의 의지는 평가받아야만 하는 요소이고, 너희의 의지가 유일하게 변화돼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또한 실패할 수 있다. 너희의 의지는 내 대적자에 의해 약해졌고, 그가 너희를 나에게 반발하는 죄를 통해 깊은 곳에 빠지게 했고 또한 깊은 곳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면에서 나에게 향하는 길을 막고, 너희의 의지가 약하게 머물기를 원하고, 이로써 성품의 변화를 이룰 수 없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이유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에게 사랑이 전혀 없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힘이고, 사랑이 또한 의지에게 필요한 의지가 강하게 되는 일을 확실하게 이뤄주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에게 속한 존재의 의지가 완전히 약해져, 스스로 내 대적자의 지배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었고, 내가 이런 존재에게 도움을 주었다. 너희 사람들은 이제 내가 땅으로 임해 너희에게 구원을 주게 된 계기를 이해할 수 있느냐? 나는 원래 초기부터 루시퍼에 의해 심연으로 타락한 영적인 존재처럼 똑 같았고, 나는 천사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생성되었고, 하나님을 모든 권세와 힘과 영광의 영원한 본질로 깨달았다. 나는 루시퍼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 편에 섰고, 나도 또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내 축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향한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채웠고, 내 안에서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영적인 존재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발전시켜 나갔다. 왜냐면 내가 루시퍼의 권세를 알았고, 의지가 없는 영적인 존재에게 향한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유일하게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적인 존재를 돕기를 원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 대적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에게서 존재들을 빼앗아 존재들을 생성되게 한 하나님께 존재들이 돌아가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다. 나는 이런 타락한 존재에게 힘을 얻게 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 그들의 의지가 강해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했다.

연약한 의지는 사랑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약한 의지는 사랑이 없는 생각의 결과이다. 내가 이제 존재들에게 강한 의지를 전하기 원하면, 나는 그들이 사랑을 행하도록 움직이려는 시도를 해야만 했고, 먼저 내 사랑을 통해 그들의 사랑이 깨어나게 해야만 했다. 나는 혼을 포로로 잡고 있는 대적자에게 구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혼을 그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야만 했다. 대적자 자신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을 풀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혼이 이제 자신이 원한다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혼이 내 힘을 받아들이기 원하면, 즉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를 활용하면, 내가 자원하여 혼에게 제공하는 내 힘을 사용하면, 대적자는 혼을 막을 수 없다.

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나는 모든 혼을 위해 구매 가격을 지불했고, 혼이 단지 나에게 향하고, 그들의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나와 내 구속역사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면, 모든 혼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존재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아주 큰 사랑으로 사탄의 권세에 대항해 그를 물리쳤다. 이로써 내 편에서 서는 사람이 가장 굳은 묶임도 파괴할 수 있게 했다.

영원한 사랑의 힘에서 나온 두 존재가 서로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랑의 힘을 사용해 싸웠고, 하나님과 함께 싸웠고, 나는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러므로 내 이 땅의 몸이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내 빛의 혼이 동시에 몸 안에 거했다. 이제 연합이 이뤄졌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각각의 존재도 또한 영원으로부터 정함받은 대로 연합을 이뤄야 한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온전하게 된 존재로서 빛과 힘과 축복 가운데 이제 역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원래 창조된 영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고, 풍부한 빛과 능력을 받아, 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잘못 사용했다. 하나님의 힘이 또한 그들에게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힘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고 이로써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일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게 했고, 인간 예수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통해 완전한 연합에 도달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권세이고 의지가 하나님께 향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이 땅의 사람들의 의지에게 제공하는 힘을 내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내 고통과 죽음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주 큰 고통을 통해 얻었다. 나를 인정하고 자신 안의 사랑이 확산되게 한 모든 사람이 이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이전의 주인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그가 나를 구세주요 구원자로 부르며 도움을 청하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을 내 대적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속박을 풀고 그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구원받기 위해 추구할 때, 내가 단지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내가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그를 해방시킬 수 없다. 그러나 내 사랑은 무한하고, 대적자로부터 모든 혼을 빼앗을 것이고, 사랑은 언젠가 모든 존재의 의지가 바뀌어 나에게 향하게 하는 일을 성취시킬 것이다. 타락한 사람의 연약해진 의지가 강하게 되는 일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로써 내가 사탄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B.D. No. 8222

1962년 7월 24일

**내**가 스스로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드린 십자가의 제물로 내가 너희를 위한 구속역사를 완성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나와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되었을 것이다. 빛의 나라와 어두움의 나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었고 너희 자신은 이 절벽 사이를 결코 넘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내 나라가 너희에게 영원히 닫히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은 너희의 큰 죄가 속죄되기 전에는 내 공의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속죄는 인간 예수에 의해 이뤄졌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왜냐면 그의 순수한 인간의 곁형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고 내가 죄가 있는 사람 안으로 육신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법과 피할 수 없는 내 공의에 따라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빛의 혼이 자유의지로 이 땅으로 임해야만 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실제 사랑이지만 내가 최고로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기 위해 공의가 없이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는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공의를 만족시켰다. 인간 예수는 타락한 피조물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고 그들에게 어두움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향하는 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예수의 빛의 혼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이 구속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다. 사랑이 인간 예수를 전적으로 총만하게 채웠고 가장 혹독한 고난과 고통을 짊어질 힘을 그에게 주었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힘을 그에게 주었고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게 했다.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런 희생을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이 나 자신이었다. 무한 가운데 가장 큰 영인 내가 인간 예수의 겉형체를 입고 나를 나타냈다. 나는 인간 예수를 내 원래의 본질인 사랑으로 총만하게 채웠고 그는 내 사랑으로 총만하게 되었다. 그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존재들의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길을 갔을 때 단지 인간의 겉형체가 내 사랑의 힘이 역사하는 일이 줄었다.

내가 그 안에 있었고 그는 내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유의지로 자신의 혼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을 성취했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는 나였고 내가 그였다. 나는 인간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사랑으로 총만했고 사랑은 내 원래의 성분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큰 죄가 속죄되었고 너희 사람들이 이제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갑자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올 자세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전에 지은 죄를 의식해야만 하고 예수 안의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짐을 가진 가운데 머물게 되고 너희는 빛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인간 예수의 영적인 사명과 그 이유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가르침을 믿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았다면, 너희가 스스로 구속 역사에 대한 모든 깨달음 얻는 일 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결과는 항상 내 영이 역사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이런 일이 너희가 너희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의 자유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너희 자신이 준비돼야만 하고 예수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의 무리 안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구속 사역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는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 건설한 다리에 들어선 것이고 빛과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은 것이다. 예수가 구속 사역을 통해 자신의 빛과 축복의 나라의 문을 너희에게 열어주었다. 예수 안에 나 자신이 거했고 내가 또한 너희를 위해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고 이로써 너희가 언젠가 나를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했다.



그리스도 문제. 볼 수 있는 하나님.

B.D. No. 5348

1952년 3월 31일

**너**희는 나를 고백한다. 그러므로 내가 또한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백한다. 이 말의 의미를 너희가 언젠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너희를 향해 발산되고,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으로 너희를 포용하는 평안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너희 자신에게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를 찾았고, 너희가 십자가에서 얻은 은혜의 보물에서 힘을 얻고, 이 힘으로 성품의 변화를 완성하여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는 영원한 사랑의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내 도움과 내 은혜와 내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나를 영원한 사랑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너희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써 세상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 힘을 줄 수 있다.

그는 나에 의해 생성되어 이 땅에 임했고, 자신 안으로 모든 충만함으로 아버지인 나를 모셨다. 그는 자신을 내 사랑의 힘으로 전적으로 충만하게 했고, 이제 이 땅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길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인 그를 통해 나에게 인도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킬 수 없고, 그를 우회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하고, 그를 따라야만 하고, 세상 앞에서 그를 고백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또한 확실하게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나에게 인도하고, 그는 자신을 통해 형체를 입은 아버지께 인도한다. 아버지는 이제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자신을 볼 수 있게 나타낸다. 그러나 너희가 내 원래의 성품이 사랑이고, 내가 무한의 전체를 채우는 영이고, 너희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너희는 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너희는 영원으로부터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에게 자녀처럼 너희 자신을 맡길 수 있다.

그와 나는 하나이다. 왜냐면 내 무한한 사랑이 나를 이 땅의 자녀들에게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깊은 밤과 사탄의 사슬로부터 이 땅의 자녀들을 구했다. 내가 인간의 형체를 활용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었다. 왜냐면 내가 영으로서 고통을 당할 수 없고, 너희 자신이 영적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완성된 것만이 인상을 주는 동안에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제공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형체도 내 역사였고, 그 안에 거하는 혼이 내 역사였다. 단지 혼이 인간 예수가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룩한 가능한 가장 높은 온전

함에 도달하기 위해 독립적 존재로 생성되었지만 그러나 사랑은 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이제 영원한 신성으로서 예수가 영화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그 안에 거했다.

너희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체가 사랑인 하나님이었다.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한 모든 존재는 또한 나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나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서 나와 융합을 이루었고, 영원히 더 이상 내 밖에서 거할 수 없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영이다.

B.D. No. 7828

1961년 2월 17일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좁게 제한된 존재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를 한 형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항상 너희가 마음에 그려보는 것은 잘못 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절대로 최고로 온전한 내 상품에 그러므로 제한이 없는 내 성품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채우고 있고 모든 것에 비추어 주는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피조물들이 나를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내 피조물들이 최고로 온전하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을지라도 이 존재는 영원한 빛과 능력의 근원을 볼 수 없는 개인의 존재로서 내 영원한 사랑의 불바다로부터 생성되어 나온 단지 빛의 불씨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내 모든 충만한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 때문에 그들은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 외에는 다른 개념을 가질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 안에서 영원한 무한한 영이 자신을 나타내었다. 그 안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 대면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내 사랑과 내 능력으로 생성시킨 내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 형체를 부여했다. 모든 무한을 채우고 있는 영원한 영이 형체에게 비추어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지라도 나는 모든 무한한 가운데 사역하고 역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성품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단지 너희 스스로 아직 제한 가운데 있고 아직 최고의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안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함으로부터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의 상태에 합당하게 너희를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최고로 온전함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내 성품을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남는다. 내 자녀들이 항상 나를 추구하고 그들의 소원이 항상 성취되는 일을 통해 나에게 의해 항상 행복하게 될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신비로 남을 것이다. 너희가 비로소 빛의 상태가 되었을 때 이해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성품은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끝 없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 가까이 있다.

이런 의식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너희의 나를 향한 사랑은 계속하여 증가되고 축복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성취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제한이 없는 축복을 선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항상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형체에 묶여 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모든 무한한 세계를 내 빛과 내 능력으로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남을 내 성품으로 채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내 자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인 너희는 예수 안에서 나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영접한 그를 내 형체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때 인간적이었던 이 형체가 전적으로 영화 되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 정도에 도달한 모든 존재에게 볼 수 있게 남는다. 그러므로 그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보면, 내 영원한 영을 보는 것이다.

너희가 그를 보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전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창조한 존재들인 너희를 위해 볼 수 있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끝 없이 충만한 능력과 빛을 소멸되지 않고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과 창조하고 조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축복을 높여 주기 위해 나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나 자신이 그들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내 자녀 가까이 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

B.D. No. 7816

1961년 2월 4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일을 내 영을 통해 너희에게 계시해줄 것이다. 내가 제한된 존재로 창조한 존재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따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 너희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영이 이미 아기 예수 안에 거했고 그가 태어난 직후에 내 영이 그 안에서 특별한 일을 행했다. 이로써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안에 내 영이 거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마쳤다. 그러나 예수의 몸은 영화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입자들이 나와 하나가 되었고 내 영이 몸이 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었고 그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요소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인 나

자신이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모든 존재들이 보기를 갈망하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나는 영이고 그러므로 내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너희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 원하고 나와 접촉하기를 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만 하고 그와 단 둘의 대화를 나눠야만 하고 너희는 그 자신을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따로 기도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옳은 일이 될 수 없다. 인간 예수 안에 내 아들이었던 혼이 거했다. 이 혼은 내가 창조한 최고로 온전한 존재였고 영들의 큰 타락이 일어날 때 나와 함께 머물렀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영원한 아버지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러나 이로써 분리된 두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한 하나님이 되었다. 왜냐면 내 원래 존재인 신적인 영이 인간의 겉형체를 전적으로 모두 채워주었고 동시에 이 형체를 영화시켰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신적인 영이었고 이 영이 무한의 세계를 향해 발산되었고 단지 존재들에게 보이는 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이로써 존재들이 상상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을 이런 존재와 연결시키기 위해 이런 존재에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영들의 타락한 원죄는 그들이 자원하여 나를 떠난 일이다. 왜냐면 그들이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면서 그들에게 자원하여 나와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그를 부르는 사람은 또한 나 자신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를 보는 사람은 영원으로부터 존재했고 존재하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존재할 나 자신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룩한 이름.

B.D. No. 5884

1954년 2월 22일

**너**희가 세상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난 가운데 너희 모두가 알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했고 그의 구속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므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면 영원한 신성이 그의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영원한 사랑이 완전히 전적으로 인간 예수를 채웠고 그러므로 인간 예수의 혼이 전적으로 신적이 되어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실제 그의 이름을 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단지 실제 선하고 고귀하지만 그가 가진 거룩한 신성을 부인하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평가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의 이름은 능력이 없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드러진 모든 기도의 성취를 그들에게 약속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는 이를 믿는 믿음을 자신의 이름을 부름으로 드러내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줄 것이다.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문제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여서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이 진리임을 의심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거룩한 이름의 능력을 절대로 시험해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가 진리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을 주고 올바른 깨달음을 주기 위한 어떤 가능성도 활용하지 않고 남겨 두지 않는다. 이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그들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모든 존재의 최종 목표는 자유의지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이다.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모른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인간 예수가 그의 이 땅의 삶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성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예수는 실제 빛의 혼으로 사람들을 그들이 한 때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임했고 사람들의 혼은 마찬가지로 빛의 혼이었고 인간 예수의 혼처럼 같은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에 의해 생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지로 온전함을 잃었고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머물지 않았고 첫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 향했다.

인간 예수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어깨에 영의 존재가 한때 지은 큰 죄짐을 짊어졌고 큰 죄짐으로 인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 이 사명을 위해 빛의 혼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혼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그는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고 또한 죄악된 이 땅의 사람들로 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고 모든 힘과 빛을 소유하게 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다.

인간 예수는 인류에게 증거를 주었고 그의 기적의 역사와 능가할 수 없는 지혜와 마침내 그의 영광스런 승천으로 그의 신적인 힘과 권세를 증명했다. 이런 힘과 권세가 사랑을 행하는 삶의 방식의 효력을 증명했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예수를 따를 때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왜냐면 예수가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전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진지하게 추구하고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도움을 청하면, 온전함에 도달하는 일이 가능하다. 왜냐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인류를 짓누르고 인류가 높이 성장하는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인류의 죄짐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짐이 해결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이런 죄짐을 감당해야만 하고 영원히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예수는 인류의 연약한 상태를 알았고 그러므로 인류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로써 예수가 자신을 구원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고 그와 그의 죄를 예수에게 넘기고 도움을 구하고 그의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이름의 힘을 경험할 것이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말하고 이로써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를 헛되이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무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B.D. No. 6098

1954년 11월 4일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를 완성으로 인도하는 선생이요 조연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 의지가 나를 영접하고 지도자요 선생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르침은 효과가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한 걸음도 성장해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적으로 모든 심장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대하면, 너희는 동시에 올바른 길을 가르침 받은 것이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구하고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즉시로 나를 거부하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고 모든 것을 채우는 영원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이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고 그들에게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면, 너희는 항상 이런 의미에서 가르침 받을 것이다. 나에 관한 설명과 너희의 과제에 관한 설명과 영원한 신성에 관한 모든 다른 설명은 진리

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설명들을 더 많이 믿고 그러므로 인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인류는 골고다를 향한 길을 가지 않는다. 인류는 인간 예수로써 내가 열어준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랑이 육신을 입은 것으로 깨닫고 인정했을 것이다.

창조하는 한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하는 한 권세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창조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권세를 상상해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창조하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만 하고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는 것이 진리이고 정해진 일로 믿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람이 나를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그에게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깨어날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임을 증명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빛과 확신의 능력을 그에게 주는 사랑이 자신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빛과 확신의 능력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나를 지도자로 제공하여 너희가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게 하고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비밀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올바른 가르침이 너희에게 빛을 주고 너희는 또한 이 가르침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단지 나 자신이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는다는 조건과 너희가 너희 안에서 인정하는 영원한 신성에게 설명해줄 것을 구하고 올바른 생각하도록 해주기를 구하고 올바르게 인도해주기를 구한다는 조건 아래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나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너희가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한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는가.

B.D. No. 8280

1962년 9월 23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칠 수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면, 너희가 언젠가 빛과 축복의 나라에 다시 영접되기 원하면,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함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알려줘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 자신이 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했다. 그는 너희의 원죄 때문에 고통이 극심한 죽임을 당했다.

너희가 그의 구속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한때 하나님을 떠났던 큰 죄짐을 지고 구속되지 못한 상태로 저세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가 자유의지로 그가 너희를

어두움으로부터 구속해 주기를 의뢰하며 그를 부를 때 그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의 죄짐을 벗게 해주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죄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너희가 성장하기 위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너희가 먼저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기는 더욱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속이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의 공훈의 역사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런 공훈의 역사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 거했고 이 사랑이 예수를 이끌었다. 예수는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축복되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다. 예수는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에 다시 들어서게 돕기를 원했다.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떠나가서 이로써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아버지와 격리되어 있었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였기 때문에 단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아버지 자신이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이 죄를 제거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종말 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인간 예수의 큰 공훈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지 가능한 일을 행해 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 후에게 저세상으로 가는 것은 영의 나라에서 이 혼이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고 그에게 공훈을 구할 때까지 깊은 어두움을 의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혼이 예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혼이 모든 빛의 존재의 노력을 거부하면,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가르침도 영접하지 않으면, 혼들의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더 나은 깨달음에 자신을 단념한다면, 그의 의지가 위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의 저항의 줄어들지 않고 영적인 친구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면 깊은 곳으로 타락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그의 원죄의 짐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과정을 새롭게 가기 위해 깊은 곳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은 굳은 광물로부터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거쳐 인간이 되기까지 모든 창조 작품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자유의지로 그의 원죄의 구속받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게 되기까지 이제 끝없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다. 모든 사람이 구속사역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단지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예수 안의 영원한 사랑이 희생제사를 드린 예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진리에 합당한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전해줘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를 인정해야만 하는지 왜 사람들이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지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요구하는지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들에게 영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과정과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타락의 결과를 설명해 줘야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큰 문제를 유일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진리를 체험해 그들이 자유의지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고 그러므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에 들어서야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악 된 인류를 위해 구매한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는 혼들을 문으로 인도한다. 왜냐면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믿고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를 인정하고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아멘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제자.

B.D. No. 5577

1953년 1월 14일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예수는 너희와 다르지 않았고, 그의 삶은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욕망에 맞서 싸우고 투쟁하는 삶이었고, 그는 이런 욕망을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억누르기를 원했다. 그의 삶은 그가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돕기를 원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고, 너희에게 나 자신을 모든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진지하다면, 너희 사람들도 그가 성취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의 혼은 실제 빛의 나라에서 왔다. 그러나 그가 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 그 안의 내 영이 때때로 그에게 말했고, 그러면 예수는 초자연적으로 지혜롭게 말했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내 영이 다시 숨으면, 예수는 자신을 너희와 같은 인간으로 느꼈고, 때때로 일어나는 더 밝은 그의 영의 상태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두렵게 했다. 그는 닫혀 있었지만 그러나 더욱 긴밀한 사랑으로 나에게 향했고, 이런 일이 그에게 그의 이 땅의 과제를 향한 빛을 주었다.

예수는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싸워야만 했고, 단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체험해야만 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왜냐면 그가 너희를 앞서 너희가 또한 가야 하고, 그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의 사랑의 삶으로 벌어드린 도움을 내가 내 사랑의 힘으로 그 자신에게 주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의 힘의 공급이 그가 구속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했다.

너희 자신이 사랑을 행함으로 내 사랑의 힘을 얻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도 또한 특별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인간 예수 안에서 아주 강하게 성장한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나 다시 그런 강한 의지는 단지 그가 자신 안에서 확장시킨 사랑의 결과이다. 그의 혼은 빛의 혼으로서 자신 주변의 큰 영적 위험을 느꼈고, 그러므로 그의 도우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고, 인간 예수가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했다. 너희 사람들도 또한 너희 주변의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을 보고, 너희가 돕기 원하면, 너희에게 힘이 제공될 것이다. 왜냐면 의지가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모든 일이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줄 수 있게 하고 이로써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성취될 수 없는 일이면, 너희에게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고, 그의 모든 신적인 성품들은 인간으로서 그가 얻은 것이고, 신성이 그에게 그의 길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성에게 순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의 사랑이 내가 제한이 없게 사랑을 표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라. 왜냐면 내가 사랑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고, 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사랑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나 자신을 강요했고, 나 자신이 해야만 하고, 내 원래의 성품이 요구하는 일인 사랑이 힘이 역사하게 하는 일을 그가 행했다.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을 나타내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강요는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느낌을 준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영원한 법에 따라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존재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사랑은 존재를 나와 연결시켜야만 한다. 그러면 존재가 내 영과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간 것이고, 이런 길이 나와 연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멘